

새한, 도레이새한 지분 16.8% 매각

일본 Toray 그룹과 543억원에 매각 합의 ... 부채비율 150% 이하 불과

워크아웃기업인 새한이 합작기업인 도레이새한의 지분을 일본 Toray그룹에 매각기로 했다.

채권단 관계자는 6월20일 “새한과 도레이가 지분매각 방안에 합의했으며 채권단 서면결의를 남겨두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매각대상 지분은 새한이 보유한 도레이새한 지분 26.8% 가운데 16.8%(1100만주)이며 총 매각대금은 543억 원이다.

나머지 10%는 도레이와 제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기로 했다.

새한은 5월 경산공장 부지를 2560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도레이새한 지분마저 매각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한층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.

채권단은 “경산공장 부지와 도레이새한 지분을 매각하고 새한마텍 지분 매각작업까지 마무리하면 6000억원 대에 달하던 새한의 금융권 부채가 2000억원대로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150% 밑으로 떨어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채권단은 새한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2006년 초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새한은 1991년 IT 신소재 전문기업인 일본 도레이와 손잡고 도레이새한을 설립했었다.

<화학저널 2005/06/22>